

탈북청소년들의 쉼터, 여명학교

글 한지혜 기자



‘귀순’과 ‘탈북’은 어떻게 다를까. ‘귀순’은 체제나 이념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이 강한 반면 ‘탈북’은 다소 다르다. 이념과 체제를 논하기 전에 ‘생존’을 위한 탈출이다. 그 곳에서도 단순한 ‘인민’이었던 탈북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자격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박해와는 무관한 탈출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난민이 되는 것. 그러나 현재 탈북자들은 국제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들에 대한 무관심은 이 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중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굶이 그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논란이 우선 따른다. 과거 귀순자들을 용송하게 쳐우했던 ‘원호제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다. 귀순만 하면 집도 거저 주고, 직장도 거저 주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자금도 마련해 주던 시절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졌다.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들이 급증한 현재,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지원 조건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나마도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금은 2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부모도 없이 단신으로 사선을 넘어 탈북을 감행한 청소년들은 최저생계비와 함께 보호 시설에 맡겨진다. 18세까지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54만 원. 그 이후로는 34만 원이다. 문제는 보호시설에서 맡아 줄 수 없는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다. 주거 정착 지원금은 2년이 더 있어야 나오는 상황. 집도 절도 없이 다달이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34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텨 내야 한다. 방치한다면 탈선과 이탈은 정해진 수순이다.

서울 봉천동에 자리잡은 ‘여명학교’는 그러한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이들에게 배움은 지식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학교 제도에서는 이 과정을 밟기가 쉽지 않다. 교과과정이 크게 다른 데다, 탈북 후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보통 3,

4년 이상을 중국 등에서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마다의 교육 수준이 연령과 무관하다. 또래 아이들과 문화적 이질감도 크다.

여명학교는 이들을 교육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정규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맞춰져 있다. 사이사이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하루 세 끼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명학교는 이들에게 든든한 쉼터다.

“처음에는 준비한 음식들이 절반 이상 남아서 많이들 당황했어요. 왜 안 먹는지 물었더니 ‘선생님, 저희 장기는 최소한의 음식물로만 버텨 와서 조금 먹는 게 습관이 되었나 보네요.’ 하더라고요.”

때문에 ‘여명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조명숙 교감은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혹 음식을 남기지 않는지 검사하느라 바쁘다. 그런 살뜰한 보살핌 덕에 처음에는 체육복이나 마요네즈를 곁들인 샐러드 등 약간이라도 기름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해대던 아이들이 1년여 만에 모두 3kg 이상씩 늘었다. 키도 제법 자랐다. 가끔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다. 밥을 먹고 싶어서다. 그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은 마음이 아프다. 다 거둬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여명학교’의 숙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다. 둘 다 쉽지 않다. 첫 번째는 일정 넓이 이상의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 대안학교법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탈북자들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생각이 걸림돌이 된다. 제도는 고치면 되지만 정서는 개선의 폭이 좁다. 현재는 북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몇몇 교회나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그야말로 십시일반의 정성이다. 실제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사선의 고비를 넘기도 했던 조명숙 교감은 이들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 그 자신 거창한 구호를 따라 운동가의 길로 나선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황을 이기지 못해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마음 따뜻이 내미는 손. 우선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